尹 "北, 핵 사용시 한미동맹 압도적 대응…정권 종식시킬 것"

국군의 날 기념사 강경 메시지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 보장"
현직 대통령 첫 시가행진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건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해 핵 도발을 시도할 경우 정권의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지난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경고음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끊임없는 핵 개발 및 고도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중한 인식을 드러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매달리면서 수탈과 억압, 인권 탄압이 계속돼 북한 주민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북한 정권은 이제라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북한을 은근히 압박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핵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와 함께 흔들림 없는 핵 억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위험 수위를 넘어 지속하는 현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이처럼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게 한 배경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빈 방미 당시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출범시키며 한미동맹을 사실상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시키고, 지난 달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 발판을 마련한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 공고해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군사적 자신감이 이날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깔려 있다는 의미다.

기념식에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문구를 배경으로 선 윤 대통령이 결연한 표정으로 "강한 군대만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한 점도 주목된다. 과거 소련을 축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해 '힘에 의한 평화'를 거듭 외쳤던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오버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은 북한의 공산세력, 그 추종세력의 '가짜 평화' 속임수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물론 북한의 통일 전술을 지지하는 내부 세력을 겨냥한 메시지도 재차 내놓았다. 이를 두고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건국 75주년 국군의날을 기념하는 시가행진에 시민들과 함께 참여했다. 현직 대통령이 시가행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군의날 행사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1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찰스 3세 영국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이어 12월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장비 부대의 시가 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화와 협력의 정치 복원 나서달라"

여야 민주 새 원내대표 선출 논평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리스크'로 인해 멈춰진 국회를 하루빨리 재가동해 민생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디 신임 홍 원내대표가 '제1야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요 며칠 사이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변화와 쇄신을 기대하는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뜨리기에 충분했기에 우려가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배신자 색출', '옥중 공천'이라는 믿기 힘든 단어가 등장하는 민주 정당의 모습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원내대표는 다양한 식견과 오랜 경륜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존경과 신망을 받아왔다"며 "홍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미뤄두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팍팍하다"며 "홍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협치를 복원한다면 21대 국회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의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홍익표 의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여야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정치 복원에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홍 원내대표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치 파국이 불러올 민생 파탄과 정치 불신의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노란봉투법, 선거제도 개혁 등 시급한 과제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

고위급회의 의견 모아

한중일 외교당국이 4년 가까이 열리지 못했던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개최된 한일중 고위급회의(SOM)에서는 3국 정상회의를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개최 시기는 3국 정상의 일정 조율 상황에 달려 있지만, 최대한 빨리 개최하자는데 3국의 의지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개최 시점은 외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민영방송 TBS가 주도하는 뉴스네트워크 JNN은 한국 정부가 12월 정상회의 개최 방안을 일본과 중국 정부에 타진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3국은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외교장관 회의도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다.

임 대변인은 이날 오전 3국 차관보급 당국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SOM 회의에 대해 "지난 4년간 정체되었던 3국 정부 간 협력이 재활성화되는 첫걸음을 떼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일중 대표들은 3국 정상들이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3국 정부 간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3국 간 협의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세 나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뉭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이날 오전 중구 롯데호텔에서 SOM 회의를 열고 3국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추진 일정과 성과사업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내년 건강보험료율 7년만에 동결…역대 3번째

직장가입자 7.09% 유지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를 적용하게 된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 폭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은 많았지만 동결로 결정된 것은 그간 사례를 볼 때 이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국민 부담과 건보 재정여건,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며 "최근 물가, 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 · 공공폐수 · 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 · 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봉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더스트리㈜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모범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선정
• 2023 국세청 모범납세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더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